

‘박항서 매직’ 들끓는 베트남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부킷 잘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말레이시아와의 아세안축구연맹(AFF) 스키컵 결승 1차전에서 2-2 무승부를 거두자 베트남 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박 감독 사진이 든 팻말도 보인다. /연합뉴스

내일 밤 하노이서 동남아 최대 축구잔치 스키컵 결승 2차전 0-0, 1-1 비겨도 우승 ... 베트남 10년 만에 정상 탈환 '주목'

‘베트남의 히딩크’로 불리는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을 앞세운 베트남이 새로운 축구 역사를 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15일 오후 9시 30분 베트남 하노이의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말레이시아와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키컵 결승 2차전을 벌인다. 베트남은 결승 1차전 원정경기에서 2-2로 비겼기 때문에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0-0이나 1-1로 비겨도 스키컵 우승을 차지한다. 결승 2차전은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안방에서 치르기 때문에 베트남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베트남이 우승한다면 2008년 대회 이후 10년 만에 동남아 최대의 축구 잔치인 스키컵 정상을 탈환한다. 아울러 승리 또는 무승부 때는 A매치(국가대표팀 경기) 무패 신기록도 작성한다. ‘박항서 매직’을 앞세운 베트남은 결승 1차전 무승부까지 15경기 연속 무패(7승 8무) 행진을 벌였다. 승리 또는 무승부 때는 16경기 무패 신기록을 작성한다. 올해 러시아 월드컵을 제패한 프랑스가 지난달 17일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 네덜란드에 0-2로 지면서 A매치 무패 행

진을 15경기에서 중단했기 때문에 베트남이 세계 축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다. 박항서호는 베트남 국민에게 희망을 주면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어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박 감독은 올해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U-23 대표팀을 지휘하며 베트남 역대 첫 결승 진출과 준우승이라는 업적을 쌓았고,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도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첫 4강 진출 성과를 냈다. 이 때문에 박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 축구의 4강 신화를 썼던 거스 히딩크 감독을 빗댄 ‘할딩크’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번 스키컵에서도 베트남에 축구 열기를 되살리며 결승까지 올랐다.

조별리그를 무패, 무실점으로 마쳤고, 준결승 상대였던 필리핀을 1, 2차전 각 2-1 승리로 따돌리고 결승에 올랐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결승 1차전은 높은 TV 시청률을 기록했고, 결승전 TV 광고료가 베트남 축구 중계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항서 감독은 원정 1차전에서 교체 멤버였던 하득전과 응우옌후이흥을 선발로 기용해 주전들의 체력을 아끼면서도 공격 루트 다양화하는 효과까지 거뒀다. 아울러 조별리그에서는 말레이시아를 2-0으로 꺾은 기억까지 있어 베트남은 안방 2차전에서 우승을 확정할 기대감이 크다. 박항서호가 하노이에서 결승 2차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베트남 축구 역사를 한 페이지를 새롭게 쓸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2018 광주야구소프트볼인의 밤’ 오늘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가 14일 ‘2018년 광주야구소프트볼인의 밤 행사’를 열고 한 시즌을 돌아본다. 행사는 오후 6시 광주염주체육관 내 국민생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감독상, 최우수선수상, 최우수타격상 등의 시상식이 이뤄진다. 올 시즌 제72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과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광주일고의 ‘2관왕’을 지휘한 성영재 감독과 제73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우승을 이룬 동성고 김재덕 감독이 최우수감독상 수상자로 단상에 오른다. 2018 전국유소년야구대회(U-12) 우승팀인 송정동초의 박태범 감독, 2018 전국유소년야구대회(U-12) 우승을 이룬 충장중 나갑남 감독, 제18회 박찬호기 전국중등학교 야구대회를 제패한 양운희 서석초 감독도 최우수감독상을 받는다. 2018 KIA 1차 지명 선수로 프로 입단을 앞둔 동성고 에이스 김기훈은 청룡기 우승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선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일고의 황금사자기와 전국체전 우승의 중심에 섰던 정해영과 박시원도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송정동초 문태균, 충장중 정지태, 서석초 김훈민도 최우수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서석초 고도영과 동성중 김도영은 최우수타격상을 수상한다. 고도영은 올 시즌 27타수 20안타 0.741의 타율을 기록했고, 김도영은 31타수 16안타 타율 0.516을 찍었다. 송정동초 박성훈(타율 0.621), 충장중 서영진(타율 0.485)은 우수타격상을 받는다. 광주일고 이승우 교장, 동성고 김영길 교장, 송정동초 김영희 교장, 서석초 김미옥 교장, 진흥고 강희원 전 야구부장, 광주시체육회 소프트볼팀 이정호 감독은 공로패를 수상한다. 심판상은 김봉균 심판위원에게 돌아간다. 광주시체육진흥과 김경호 과장은 감사패를 받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축구 외국인 사령탑 모시기 전남 드래곤즈도 선임 나서

‘지도력을 갖춘 외국인 사령탑으로 팀을 새롭게 한다’ 국내 프로축구 구단들이 1부 리그인 K리그1 잔류에 성공한 인천과 대구의 긍정적인 효과에 힘입어 외국인 지도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천은 올해 시즌 중인 6월 9일 영입한 예른 안데르센(55·노르웨이) 감독이 내년에도 팀을 이끈다. 내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계약한 안데르센 감독은 시즌 막판 극적으로 인천의 1부 잔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선수 시절 독일 분데스리가 득점왕을 차지했던 스타 플레이어 출신인 안데르센 감독은 지도력을 발휘하며 지난 1일 전남과 최준전 3-1 승리를 지휘해 ‘잔류 동화’를 완성했다. 대구FC도 지난 시즌이 끝나고 ‘감독대행’ 꼬리표를 뺀 뒤 인천 안드레 루이스 알베스 산투스(46·브라질) 감독에게 내년에도 지휘봉을 맡긴다. 조광래 대구 사장은 “1부 잔류와 FA컵 우승을 이끈 안드레 감독과 내년 시즌 함께 간다는 게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조율해 재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K리그1 2연패를 달성한 ‘명문 구단’ 전북 현대는 최강희 감독이 중국 슈퍼리그 톈진 취안젠으로 옮기면서 명장급의 외국인 사령탑을 영입한 사례다. 전북은 조제 모라이스(53·포르투갈) 감독과 2020년까지 2년 계약했다. 모라이스 감독은 인터 밀란(이탈리아)과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첼시(잉글랜드) 등에서 조제 모리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의 수석 코치로 활동한 ‘모리뉴 사단’ 출신이다. 기업 구단으로는 처음으로 2부(K리그2)로 강등된 전남 드래곤즈는 새로운 외국인 사령탑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전남은 1부 잔류에 실패한 김인환 감독대행과 결별하고, 새 감독 후보로 외국인 5명을 압축했다. 신승재 전남 사장은 “내년 1부 복귀가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 선임은 ‘플랜 A’로 진행하고, 안 된다면 ‘플랜 B’로 내국인 지도자를 포함해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축구 팬들이 뽑은 ‘올해의 골’ 월드컵 독일전 손흥민 썰기골

2위는 아시안게임 이란전 이승우 골 독일전 득점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올해의 골’ 영예를 안았다. 두 번째 선정된 박주영(서울)과 박지성을 뛰어넘은 최다 수상이다. 손흥민의 골에 이어 이승우(엘라스 베로나)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16강 이란전에서 화려한 개인기로 넣은 골이 28.8%의 선택을 받아 2위에 올랐다. 3위는 손흥민이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전에서 넣은 중거리 슛(8.2%)이었다. ‘전차군단’을 무너뜨린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은 ‘올해의 경기’ 투표에서도 과반수(53.1%)의 지지를 받았다. 아시안게임 결승 한일전(34.2%)과 황희조(김바오사카)가 헤트트릭을 기록한 아시안게임 8강 우즈베키스탄전(5.3%)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독일전 득점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올해의 골’ 영예를 안았다. 두 번째 선정된 박주영(서울)과 박지성을 뛰어넘은 최다 수상이다. 손흥민의 골에 이어 이승우(엘라스 베로나)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16강 이란전에서 화려한 개인기로 넣은 골이 28.8%의 선택을 받아 2위에 올랐다. 3위는 손흥민이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전에서 넣은 중거리 슛(8.2%)이었다. ‘전차군단’을 무너뜨린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은 ‘올해의 경기’ 투표에서도 과반수(53.1%)의 지지를 받았다. 아시안게임 결승 한일전(34.2%)과 황희조(김바오사카)가 헤트트릭을 기록한 아시안게임 8강 우즈베키스탄전(5.3%)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 한국과 독일의 경기. 손흥민이 한국팀의 두 번째 골을 넣고 있다. 이 골은 팬들이 뽑은 ‘올해의 골’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벤투-김학범 감독, 연습경기로 상생 협력

한국축구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김학범 23세 이하(U-23) 대표팀 감독이 파울루 벤투 성인대표팀 감독과의 적극적인 소통, 협력을 통해 ‘상생’을 기대하고 있다. 두 감독은 9월 벤투 감독이 데뷔전을 치른 뒤 축구협회에서 정정용 19세 이하(U-19) 대표팀 감독 등과 함께 만나 상견례를 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이달 비슷한 시기 두 팀이 모두 울산에서 소집훈련을 진행 중인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당장 두 팀은 16, 20일 두 차례 연습경기에 나선다. 국가대표팀으로서 2019 아시안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최종 엔트리 발표에 앞서 마지막으로 선수들의 경기력을 실전에서 확인할 기회다. /연합뉴스

두 번에 걸쳐 총 48명을 소집한 U-23 대표팀은 각기 다른 구성의 두 팀을 시험대에 올려 2020 도쿄 올림픽으로 가는 첫 관문을 준비할 수 있다. U-23 대표팀으로서 국내에서 가장 강한 상대를 만나 기량을 점검하는 셈이고, 국가대표팀 입장에서 이 정도의 연습 상대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원원’이라 할 수 있다. 두 팀이 맞붙는 건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선수 발굴이나 기량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김학범 감독의 생각이다. 각자 일정이 진행되다 보니 쉽지는 않겠지만, 김 감독은 1년에 한 번이라도 A대표팀을 필두로 연령별 팀이 같은 지역에서 훈련하며 이번처럼 실전을 치르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